

# 코로나19의 수출기업 영향 조사

2021.5.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작성자 : 김윤지 선임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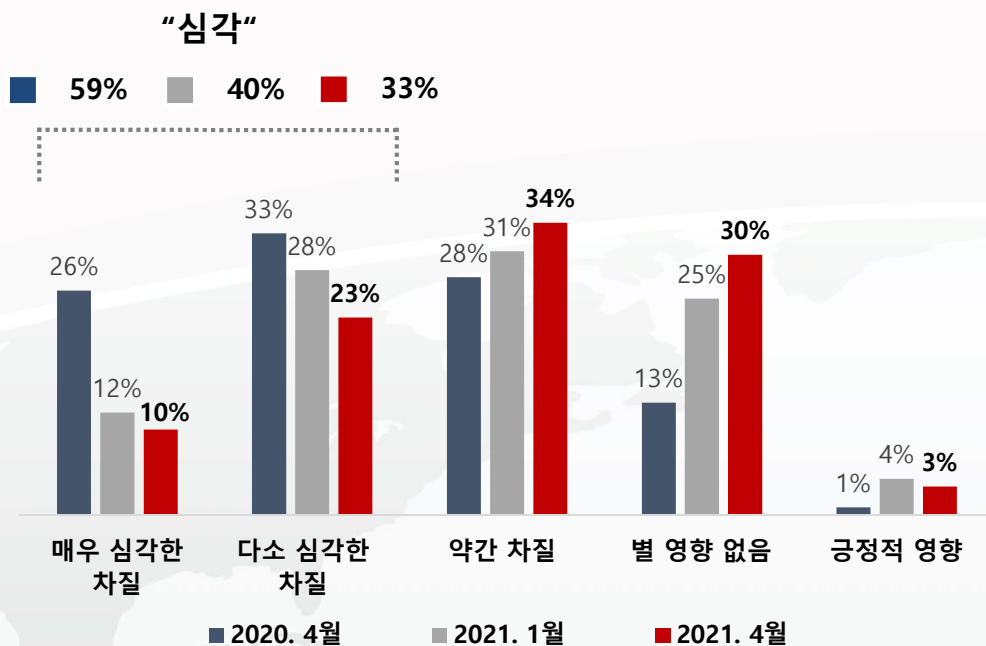
- 목적 : '코로나19의 수출 기업 영향' 관련 조사
- 설문 대상 : 수출 기업 455개社 ( 설문 대행 조사기관 (주)칸타코리아 )
  - 기계류(129개社), 자동차(87개社), 전기전자(74개社) 등 총 13개 업종
- 설문 기간 : 2021. 4. 5 ~ 2021. 4. 9 (5차 조사)
  - \* 1차 조사 : 2020.4.1 ~ 2020.4.10
  - 2차 조사 : 2020.7.6 ~ 2020.7.10
  - 3차 조사 : 2020.10.5 ~ 2020.10.8
  - 4차 조사 : 2020.1.6 ~ 2020.1.12

#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영향

## ■ “심각한 차질” 크게 감소, “영향 없음” 증가 등 코로나19 위기 회복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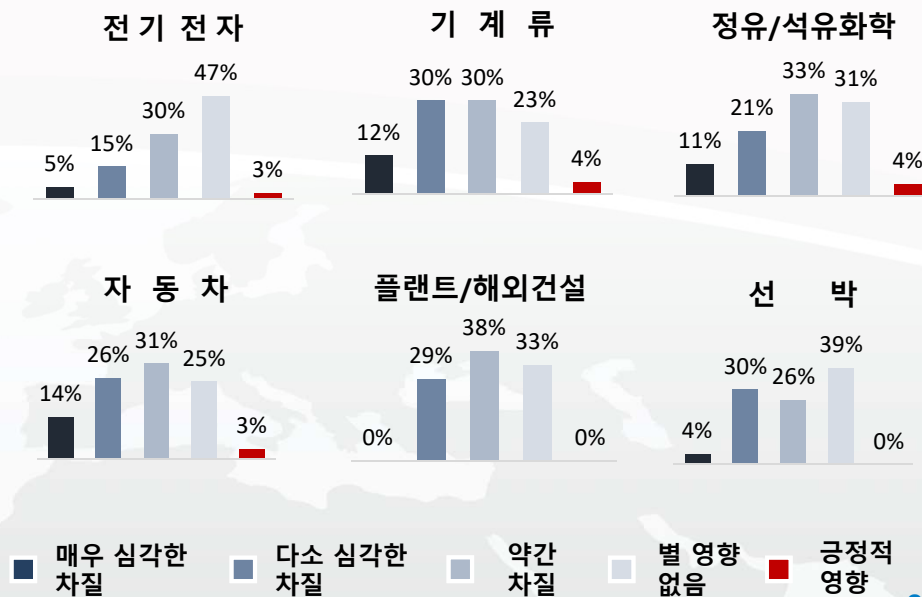
- 세계 경기 회복으로 “심각한 차질”(2021년 1월 40%→2021년 4월 33%, 이하 시점 동일) 응답률 전 분기 대비 7%p 하락, “약간 차질”(31%→34%)·“영향 없음”(25%→30%)은 증가하는 등 수출 회복세 강화
- 기업 투자 증가,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 영향으로 전기전자 “별 영향 없음”(32%→47%) 응답 비중 최대, 수주 호황으로 선박도 “별 영향 없음”(15%→39%) 크게 증가, 국제유가 상승 등 중동 경기 회복세로 플랜트/해외 건설도 “별 영향 없음”(20%→33%) 증가
- 미국·유럽 자동차 시장 회복세로 자동차는 “심각한 차질”(47%→40%) 비중 감소, “영향 없음”(19%→25%) 증가, 기계류도 “심각한 차질”(47%→42%) 비중 감소, “영향 없음”(17%→23%) 증가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영향력은 존재

코로나19 수출 영향



코로나19 산업별 수출 영향

(2021. 4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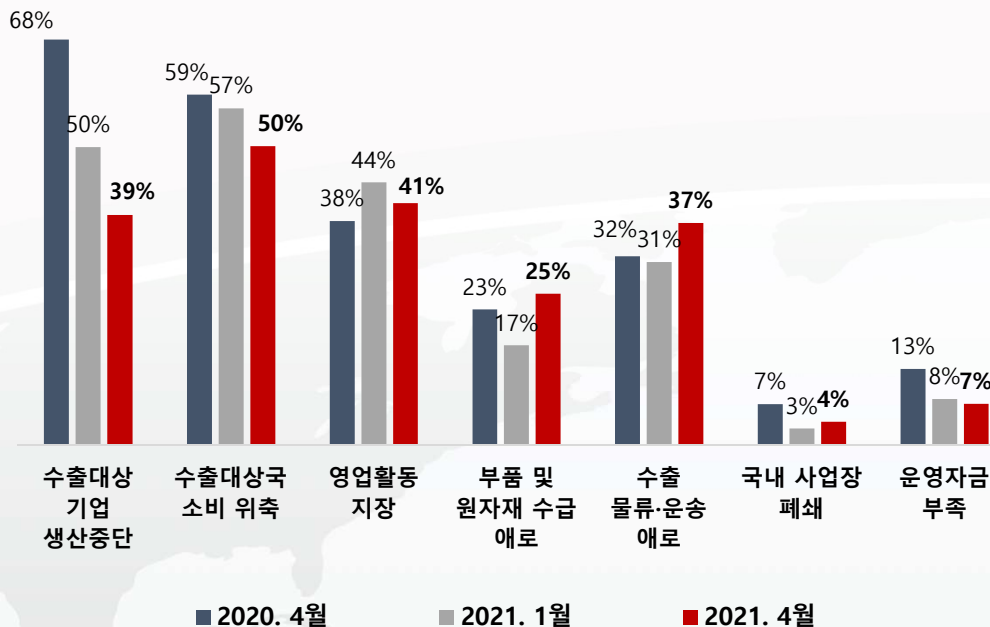


#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차질 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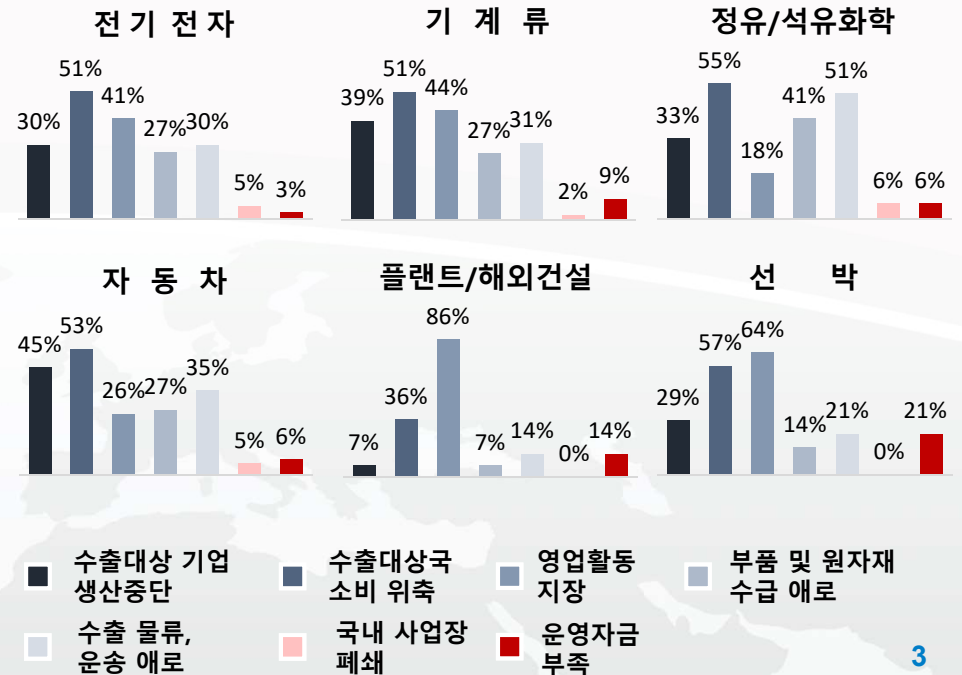
## ■ “물류 및 운송”, “부품 및 원자재 수급” 등 수출 지원 관련 차질 증가

- “수출대상국 소비 위축”(57%→50%) 응답 가장 많으나 비중은 감소, “수출대상 기업 생산중단” (50%→39%) 도 크게 감소
- 수출 주문은 늘어나고 있으나 선박·컨테이너 부족 등으로 인한 “수출 물류·운송 애로”(31%→37%) 비중 증가  
반도체 품귀, 원자재가격 급등 영향으로 “부품 및 원자재 수급 애로”(17%→25%) 비중도 증가
- 해외수주 활동이 중요한 플랜트/해외건설(69%→86%), 선박(61%→64%) 등은 대면 회의 부진 등으로 “영업활동 지장” 비중 증가,  
기계류, 정유/석유화학, 자동차는 “부품 및 원자재 수급 애로”, “수출 물류, 운송 애로” 모두 증가

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차질 원인 (복수 응답)



산업별 수출 차질 원인 (2021. 4월, 복수 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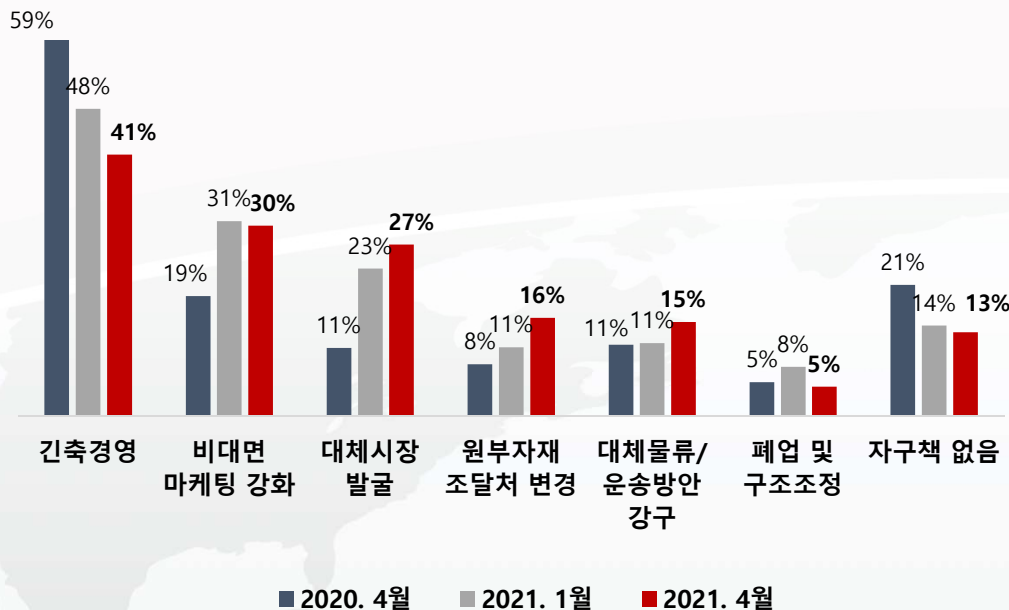
# 코로나19 피해 대응 자구책

## ■ “긴축 경영” 감소, “대체시장 발굴” 및 “원부자재 조달처 변경” 증가

- “긴축경영” (48%→41%), “비대면 마케팅 강화”(31%→30%) 응답률이 높지만 수출 회복세로 비중 축소,  
조달·운송 문제 해결을 위한 “원부자재 조달처 변경”(11%→16%), “대체물류/운송방안 강구”(11%→15%) 비중 증가,  
지역별 불균등 회복 등으로 “대체시장 발굴”(23%→27%) 응답 비중도 증가
- 전기전자, 기계류, 자동차 등은 경기 회복세 대응 위한 “대체시장 발굴”, “원부자재 조달처 변경” 증가,  
해상 운송 의존도 높은 기계류(11%→17%), 자동차(16%→23%), 플랜트/해외건설(0%→14%)은 “대체물류/운송방안 강구”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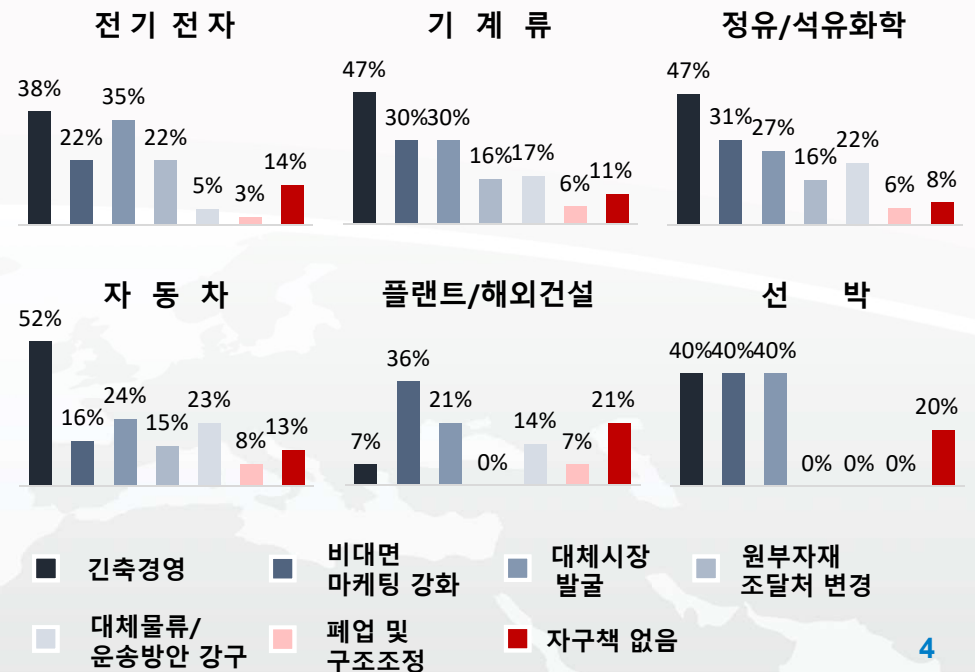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 피해 자구책

(복수 응답)



산업별 코로나19 피해 자구책

(복수 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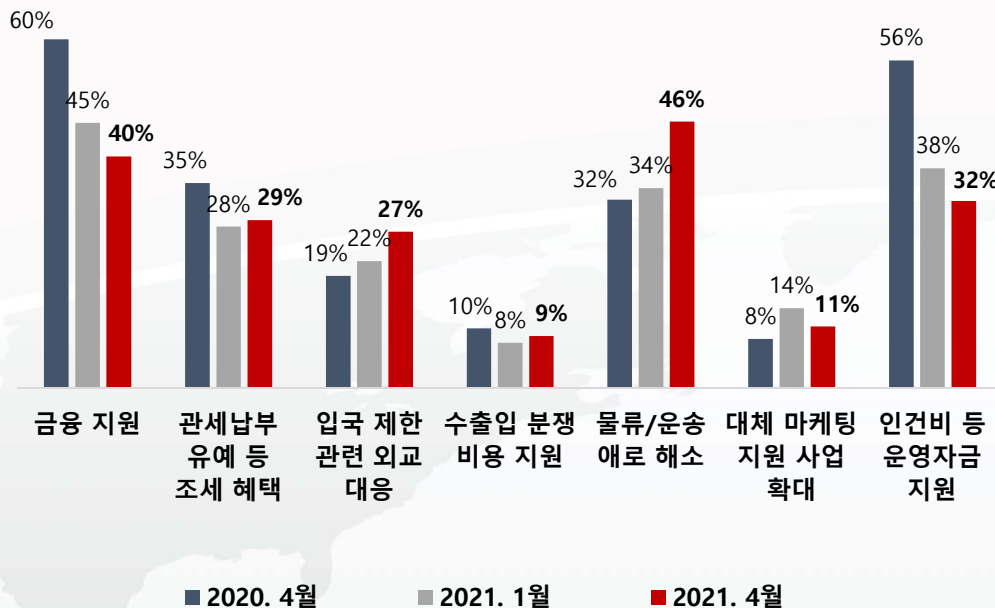


#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정책

## ■ “물류/운송 애로 해소” 비중 최대, “입국 제한 관련 외교 대응” 등도 증가

- 선박, 컨테이너 부족 현상 등으로 “물류/운송 애로 해소”(34%→46%) 응답 비중 최대로 증가, “입국 제한 관련 외교 대응”(22%→27%) 등 수출 영업 활동 지원책 응답도 지속 증가
- “금융지원”(45%→40%), “운영자금 지원”(38%→32%) 등 단순 자금 지원 정책 수요는 비중은 높지만 감소세
- 부품·원자재 수입 비중 높은 전기전자(27%→38%), 기계류(34%→38%), 정유/석유화학(43%→59%), 자동차(40%→50%)는 “물류/운송 애로 해소” 응답 증가
- 수주 활동 중요한 플랜트/해외건설은 “입국제한 관련 외교대응”(44%→50%) 비중 증가, 선박은 “인건비 등 운영자금 지원”(43%→60%) 등 자금관련 지원 응답 증가

코로나19 관련 시급 정부 지원정책 (복수 응답)



산업별 정부 시급 지원정책 (2021. 1월, 복수 응답)

